

본 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추진 현황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업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 “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업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업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일정

- 2005. 11.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겸업제한 폐지 결정
- 2006. 4. : 건설선진화포럼 구성 및 공청회 개최
- 2006. 7. 25 : 건교부, 건산업 개정(안) 입법예고
- 2006. 10. 24 : 법제처 심사 통과
- 2006. 11. 7 : 국무회의 의결 통과
- 2006. 11. 13 : 개정안 국회 이송
- 2006. 11. 30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 2006. 12. 5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원회 상정 예정
- 2006. 12. 6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결 예정

## 2. 현재의 건설생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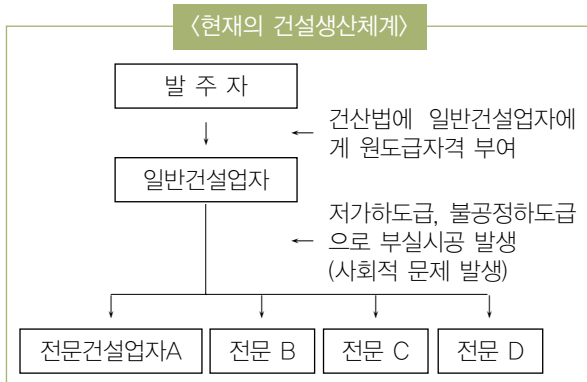
### □ 건설업자

- 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5개업종)
  - 도급업역 : 전체공사를 도급받아 종합적인 시공관리 및 시공
  - 등록기준 : 건설기술자 12인, 자본금 12억
-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업 등 25개업종)
  - 도급업역 : 당해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 등록기준 : 기술인력 2인, 자본금 2억

본 회

□ 건설생산체계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전문은 일반업을 일반은 전문업을 영업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건설생산체계에 참여
- ※ 일반·전문 전문성 및 영업범위 보호를 위해 겸업제한제도 시행
- 하도급과정에서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유발되고 발주자의 예산 낭비요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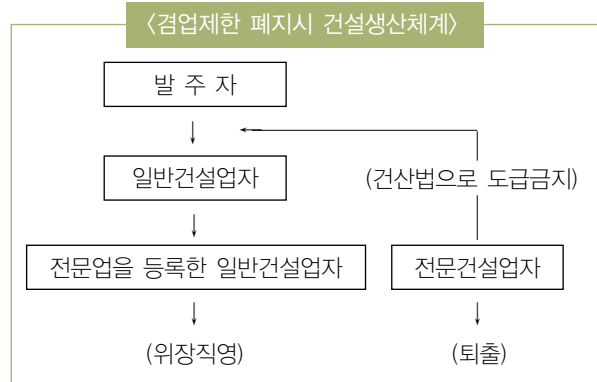


3. 건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 단순히 겸업제한만을 폐지시 문제점

- 일반건설이 전문건설의 영역인 하도급시장까지 독점
- 겸업이 허용되면, 자본, 인력이 월등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을 손쉽게 등록하여 일반건설시장(원도급시장)은 물론이고 전문의 하도급시장까지 진입하여 독점
-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고, 등록을 해도 시공실적등장벽이 많아 입찰참여가 불가능

- ※ 기계설비공사와 시공기술이 유사한 산업·환경설비공사는 PQ로 발주
- 전문건설은 원도급 입찰참가 기회가 거의 없으며 하도급시장까지 일반에게 빼앗겨 괴멸될 위기에 처함
- 단순히 겸업제한만을 폐지할 경우, 경제적 강자인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의 하도급시장까지 내주는 일방적인 개정안임



4. 대한설비건설협회,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로 개선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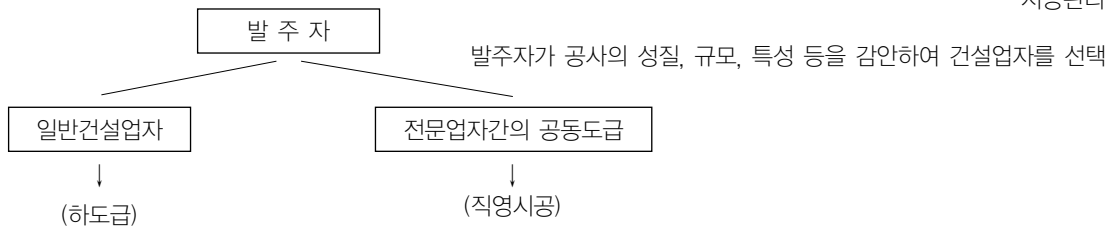
□ 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는 법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개정 필요

- 단순복합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전문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
- CM에 의한 공중별 발주가 가능토록 CM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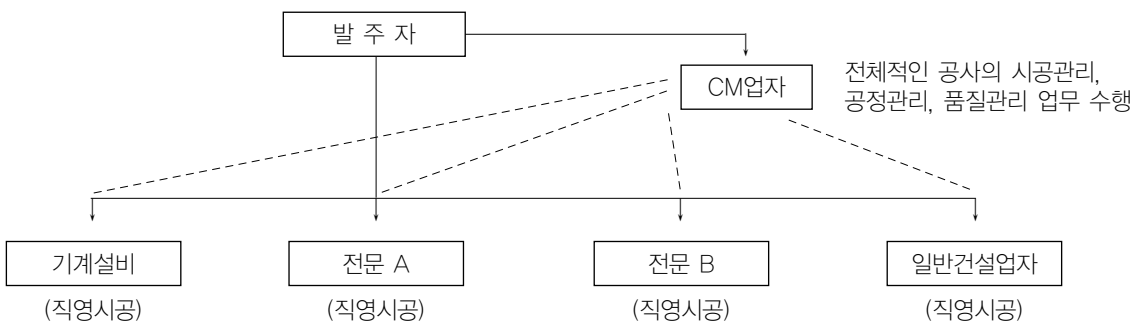
본 회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 단순복합 공사의 경우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 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전문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부실시공 방지(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건설생산방식)

□ 회장단 및 상임임원이 국회 건교위를 방문, 수차례에 걸쳐 건의

-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본회 상임임원, 시·도회 회장들이 적극 나서서 건교위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일반·전문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에 대한 건교부자료의 문제점과 우리협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

□ 전국 시·도회장 회의 긴급 개최

- 지난 11월 20일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건산법 개정안이 12월 6일 국회 건교위에서 의결될 때까지 각 시·도회 회장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건의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을 집중하여 논의함

□ 전국 각 시·도회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구 의원에게 건산법 개정관련 설비업계 의견 송부

- 2006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일반·전문 건설업자간 겸업제한폐지”에 대한 건교부자료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을 송부

□ 건산법 개정과 관련 내용 건설전문지에 보도

- 건설관련 언론을 주도하는 건설경제신문, 대한건설신문, 건설기술신문, 건설교통신문 등 건설전문 언론사에서 겸업제한 폐지의 문제점이 집중 보도 됨

본 회

## 전국 시·도회장 회의 개최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11월 20일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산법 개정안이 12월 6일 국회 건교위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긴급히 소집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회 회장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에게 건의 등을 통해 건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관련 추진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 의결 통과하여 11월 3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우리협회의 의견을 관계요소에 적극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시 영업범위제한 완화 건의
  -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제한 완화(영업범위 규제완화가 없는 일방적 겸업제한 폐지는 반대)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 없는 단순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 간의 공동도급 허용
  - CM에 의한 기계설비 등 전문공사의 공종별 발주 근거 마련

### □ 제6대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실적

- △ 국민연금·건강보험 원가반영 의무화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 △ PQ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율 반영제도 개선 추진
- △ 설비건설업계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훈
- △ 인터넷 증명서발급시스템 및 홈페이지 재편성 구축
-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본 회


## 제35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회의 개최



**대한** 특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이효련)는 지난 11월 23일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제35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도시가스시설 감리 방법 등의 개선 건의안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검토의견 회신 △도시가스시설공사 관련 도시가스사업자

의 부당행위 방지 재건의 △신KS규격 개정 관련 PE 배관 등 물량 확보 방안 안내 △가스특별회비 징수 현황 등이 보고되었다.

이어 부의사항으로 상정된 △2007 회계연도 특별회비 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서울특별시회

## 대표회원 등산대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청계산 등산대회 2006. 11. 18. (토)

**서울** 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대표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대표회원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들의 체력단련과 대표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등산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청계산 이수봉 정상에 올라 대표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졌다.

이번 등산대회에 참석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오늘 등산대회가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시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오늘 산행이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유대강화와 함께 협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회


# 2006년 부산지역 가스안전결의대회 개최



**부산** 지역의 가스안전의식 고취와 가스관련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가스안전문화 정착 풍토조성을 위한 '2006년 부산지역 가스안전결의대회'가 지난 11월 7일 부산광역시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도시가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김

광한) 부산지역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차동영)가 후원한 이번 가스안전결의대회는 부산지역 가스관련 업무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해 가스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

이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산지역 가스관련인들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회


## 2006년도 추계 설비기술세미나 개최



**대한** 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김광환)를 비롯한 부산 설비설계협회의는 지난 11월 3일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대체에너지, 환경, 정보를 토대로 하는 '2006년도 추계 설비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니슨(주) 홍찬호 부장이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요 및 활용」에 대한 발표를 비롯해 △(주)태양전지 신현정 연구원이 「외부경관조명

을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박종일 교수가 「건축설비 에너지, 자원절약 관련제도 현황」을 △LG전자 김동한 과장이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환기 시스템」을 발표했다.

부산설비설계협회의는 부산지역 설비건설인들의 지식함양과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매년 설비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 · 충남도회

# 한국폴리텍Ⅳ 대학과 산·학 협약식 가져



성열구 회장은 한국폴리텍Ⅳ대학과 산·학 협약식을 갖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앞줄 가운데)

**대전** 충남도회(회장 성열구)는 지난 10월 24일 한국폴리텍Ⅳ대학 대회의실에서 산·학 협약식을 갖고 산학협동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충남도회 성열구(주)대청엔지니어링 회장을 비롯하여 양효석[(합)공영산업] 부회장, 윤기중[서동산업(주)] 부회장, 진승기[홍진기건(유)] 감사, 유현철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폴리텍Ⅳ대학의 이권현 학장을 비롯하여 최태식 교학처장, 남성기 기획처장, 이진법 산학협력단장, 장우영 산업설비자동화과 학과장, 김동우 산업설비자동화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전·충남도회와 한국폴리텍Ⅳ대학은 이날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알선을 비롯하여 △교수의 현장연

수 및 현업 종사자의 장·단기 향상교육 지원 △공동연구 및 개발 △교과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학교 교육 참여(겸임교수, 시간강사, 특강 등) 등의 협동 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



대전 · 충남도회

##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 개최




**대한** 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성열구)와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 등 설비 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상임이사가 「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이 「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충남대학교 장동순 교수가 「역학으로 본 풍수와 기상」을 △한국설비기술협회 임형택 사무국장이 「설계 및 감리용역업의 문

제점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상임이사가 발표한 「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통해 건설법 개정 현황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은 「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충북도회

# 청주 산남2-1단지과 1사 1단지 결연 맺어

- 도시 영세민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서기로 -



장순경 회장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1사1단지 결연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진가운데)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지난 11월 2일 대 한주택공사가 도시 영세민을 위해 건설, 공급한 청주 산남2-1단지과 1사1단지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에서 장순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입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그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1사 1단지 결연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순경 회장은 또 “이러한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협회와 회원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사 1단지 결연 체결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주택관리공단 청주산남2-1관리소,

2-2관리소는 소외계층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단지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불우 입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입주민의 자활의욕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적극 협력·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먼저 단지 내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협력, 추진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키로 했다.

한편 2006년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충북지역 시범단지로 선정된 청주 산남2-1단지는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